

## 제36차 콜로키움

제목: 한계체험의 한계: 푸코와 바타이유

(Limits of Limit-experience: Bataille and Foucault)

일시: 1994. 10. 21

강사: 마틴 제이(Martin Jay: 미국 버클리대 교수)

마틴 제이는 이 강연에서 - 오늘날 포스트 구조주의의 담론을 중심으로 한 현대 명미 철학계의 한 단면으로 - 소박한 경험 개념을 고수하는 측과 반면 전적으로 거부하는 측 사이의 대립을 주목하고 마치 대안이 없는 듯한 이 '진부한' 양자택일을 넘어서 '경험'에 관한 담론을 생산적으로 전개할 단초를 모색한다. 그의 이같은 논의는, 철학사적으로도 연원이 깊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금세기의 철학적 논의에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경험을 둘러싼 주제를 현재 '호황기'를 누리는 포스트 구조주의의 담론들에 연결해서 전개함으로써 시사성도 띄고 있다.

일반적으로 포스트 구조주의는 경험에 대한 비판의 준거점으로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이는 포스트

구조주의 진영의 시도를 통일적이고 전체적이고 정합적이며 현전(現前)적인 뜻으로 해석된 특정한 경험개념 - 직접성의 의미를 가진 '체험'이나 축적된 지혜의 의미의 '경험(교양)' - 의비판으로 보고 있다. 제이는 포스트 구조주의자들, 적어도 푸코와 바타이유에게 있어서 경험은 '경멸'할 개념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존중'해야 할 용어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한다. 그는 한계체험을 단서로 해서 - 정초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 경험의 자기 함몰성을 초월하는 차원을 적시하고 동시에 이에 의해 혹은 그 때문에 공동체 및 의사 소통의 구성까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제이가 접목하는 푸코의 경험개념이 주관을 침식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능하는

바로서의 정합적인 주관성을 뛰어넘는 것이고 삶 자체의 바로 그 가능성이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체험’이라 한다. 경험이란 제이에 의하면 순수 내면성과 장애없는 친교의 공동체도 아니고 헤겔주의적인 사변적 경험의 개념도 아닌 것으로, 그것은 담론적 관계들의 연결망에 용해되어 버릴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경험의 원초성을 비판하는 논거는 말하자면 담론, 언어, 힘의 구조가 경험이 출현하는 매트릭스를 제공하는 것이요, 그 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담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경험의 영역에 단순히 함몰된 것도 아니다.

제이는 바타이유에 있어서도 내적 경험이란 주객의 혼용상태도 아니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온전히 내면화된 경험도 아니며, 한계 경험도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아 그리고 자아와 세계의 넘어설 수 없는 경계가 아니고, 또 단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자를 불가피하게 포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와 경험은 연루되어 있으며, 사회의 밖에서는 경험도 없으며 거꾸로 경험 안에는 사회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공동체가말로 유한적 존재들로 구성되고 그들의 관계는 그들의 상호적인 한계를

통해 성립된다. 이 점에서 타자들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를 유도하는 정수가 되는 한계경험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마찬가지로 의사소통도 이같은 단초에서 보면 유한성의 계기를 통해 규정된다.

절대성의 지표 아래 유한자가 합물, 지양되어 버리는 ‘거대한 이야기’를 피하고 유한자가 무한성의 철학의 징표 하에 증발해 버리는 것을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이 논의의 의의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계경험에서 공동체를 도출하는 시도는 그러나 오늘날의 수준에서 사회구성의 이론으로 충분한 논거라고는 할 수 없다. 제이도 이 점을 숙지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차이의 패러다임’에 대해 제기될 수 있을 일련의 비판적 물음들로 ‘한계경험의 한계’를 시사한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한계경험의 한계’를 천착하여 ‘차이의 패러다임’이 갖는 귀결에까지 추적해 들어가지 않고, 푸코와 바타이유를 위시한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적어도 ‘소박한 경험적 직접성’과 마찬가지로 ‘소박한 담론적 매개’ 사이의 ‘생산성없는’ 양자책일을 넘어서게 한다는 ‘장점’의 지적과 함께 사실상의 주제를 다소 급작스럽게 마무리하는 듯한 아쉬움을 남긴

다. 그 경향에서 볼 때 제이의 논의는 말하자면 경험없는 담론과 담론없는 경험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포스트 구조주의를 정점에 두고 하이데거의 사유와 (본 강연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프랑크푸

르트 학파를 연결하는 현대 서구 철학의 삼각의 문제를 선부른 예단은 삼가하면서 - '탈'보다는 '후기'로 파악되는 것이 더 적절한 - '탈근대적' 조건 하에서의 사유의 한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고 하겠다.

제37차 콜로키움

제목: 증거론이란 무엇인가?

일시: 1994. 11. 11

강사: 김도식(서울대 강사)

Gettier가 반례를 통해, 앎을 '정당화된 참 믿음'으로 정의한 전통적 입장이 앎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부족함을 지적한 이래, 많은 인식론자들은 '정당화된 참 믿음에 어떤 조건을 더해야 앎의 올바른 분석이 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인식적 정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최근 이삼십년 동안 '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연구가 인식론의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기존의 입장들, 즉 토대론, 정합론, 신빙성론 등은 나름의 문제에 의해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앎의 필요조건인 '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이론으로 1985년에 리처드 웨드만과 얼 카니에 의해 발표된 증거론(evidentialism)이 많은 주목을 받으며 등장하게 된다. 증거론은 '인식적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EJ) 어떤 사람 S가 어떤 시점 t에 어떤 명제 P를 믿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다음과 같은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1) E는 S가 t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이며,
- 2) P를 믿는 것이 E와 맞아 떨어진다(fit).